

‘환자를 위한 병원’ 서초참요양병원

다양한 첨단치료 시설, 미래병원 모델 확산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서초참요양병원이 지난 3월 14일 참된 병원으로 가는 첫 발걸음을 뒀다.

(의)참예원의료재단 김옥희 이사장은 “서초참요양병원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메이요 병원처럼 환자중심 서비스와 사람을 사랑하는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만 진정으로 환자를 사랑하는 병원이 드물어 우리가 환자를 사랑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희 이사장이 볼 모델로 꼽은 메이요 병원은 1889년 외과 의사였던 윌리엄 메이요(William Worrall Mayo)가 두 아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이다.

27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세계 각지의 고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세계 최고의 병원이자 ‘임상의 메카’가 된 곳이다.

김 이사장이 메이요 병원의 특화된 요소로 ‘환자중심 문화와 비영리단체의 모태라는 것, 협력을 통한 수평적 리더십’을 꼽았다.

메이요 병원의 운영철학이 ‘환자를 위한 참된 병원’을 만들겠다는 이념 아래 설립된 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설립자 김전태)의 운영방침과 닮았다.

김옥희 이사장은 “환자분이 아파서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수 있도록 모든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를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구성했다.”고 말했다.

먼저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성을 위해 김 이사장은 서초참요양병원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오직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세심하게 구성했다.

병원 곳곳에 편안한 의자를 비치하여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 병원 곳곳에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내부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었다.

또한 환자들이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네일아트와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용실을 만들었으며, 팩반석찜질방, 월풀 목욕실 등을 만들어 피로회복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

환자의 신체적 질환의 치료뿐 아니라 병원 생활로 지친 환자와 보호자의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있다.

단순히 병원에서 개최하는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 평소 문화생활을 즐겨 수준 높아진 관객들의



참여원의료재단 김옥희 이사장

눈 높이에 맞춰 판소리, 밴드, 클래식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활치료의 신(新) 의료기술인 로봇 보조정형용운동장치(보행치료), 수치료 등의 재활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의 질환 및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를 돕고 있다.

이처럼 서초참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힘쓰는 등 서초참요양병원의 미션인 ‘환자를 위한 병원’을 실현하고 있다.

서초참요양병원은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한 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터,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뉴얼을 체계화하여 갖추는 등 보호자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서초참요양병원 1층로비(上), 1인실 병동(中), VIP라운지(下).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옥희 이사장은 환자중심 의료 환경 조성에 그치지 않고, 환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따뜻함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 서초참요양병원을 찾아주는 환자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며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듯이 정성껏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김 이사장은 “집처럼 따뜻한 분위기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확실히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빠르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서초참요양병원 직원들이 따뜻함과 섬김의 자세를 실천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환자분들이 인생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희 이사장은 서초참요양병원의 전 직원에게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의식있는 책임자’가 되기를 강조한다. 김 이사장은 홀로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별자리’처럼 직원들과 함께 빛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펼쳐야만 캄캄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자리처럼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옥희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서초참요양병원의 미션인 ‘환자를 위한 병

원’과 비전인 ‘당신을 위해 최고가 되겠습니다.’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옥희 이사장은 “서초참요양병원은 국내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춰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저의 건강한 삶을 통해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의 꿈을 드리고 있다. 병원운영은 무엇보다 환자가 얼마나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의료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환자와 가족의 아픔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더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매일 아침 다짐한다고 한다.

스스로의 다짐을 몸소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도 환자중심으로 생각할 것을 당부한다.

김 이사장은 “저의 다리를 고쳐주고 그 보답을 받은 흥부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적을지라도 아픈 사람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해 정성을 다해 도와야만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환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대한시절 친구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김옥희 이사장은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해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으며, 남편(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 설립자 김선태)을 만나 의료법인 참여원의료재단을 설립했다.

김옥희 이사장의 바람은 서초참요양병원을 환자 중심 서비스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환자를 위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먼지처럼 조용히 없어지고 환자와 환자를 위한 직원이 남아 아픈 사람을 위한 병원의 기본에 충실한 그 병원만 남기를 김 이사장은 소망하고 있다.

서초참요양병원은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여 찾아온 노년의 계절,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연구하여 환자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 복지와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며 모범적인 노인보건복지의 연결망 구축의 모델이 되고 있다.

재활치료의 신(新) 의료기술인 로봇재활장비, 수치료장비 도입 등을 통한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과 환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를 위한 병원,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초참요양병원의 현재 진행형은 앞으로 미래 병원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MP저널



▲서초참요양병원 치유의 정원.